

## 육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 개최

농가회원의 열띤 참여로 성황리에 종료



본회는 지난 10월 8일 대전 유성 소재 흥인호텔 별관 21층 스카이홀에서 '육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회 회원농가를 대상으로 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주)하림 정문성 전무의 '육계농가 소득 2배 확대 전략', 메리알코리아 이동우 박사의 '육계 면역억제성 질병의 최신 해법', 농림수산식품부 노수현 과장의 '육계산업 발전 대책' 등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올해 본회 가입한 농가회원에 대한 환영의 의미로 개최된 것으로 기존 강의 형식에서 탈피, 이용영 태평양교육센터 전문강사의 '젊음과 건강을 향한 무한도전!'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마련돼 참석자들에게 건강하게 사는 방법 등을 소개했다.

본회 서성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농가 회원 여러분들을 비롯 계열사 임직원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아무쪼록 이번 육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가 여러분들의 농장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회는 육계사육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육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매년 전국의 육계사육 농가들을 대상으로 사양 및 질병 세미나를 개최해오고 있다.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관련

### 현행제도 유지토록 법제처에 건의

최근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통해 '닭·오리 도축장 책임수의사의 1일 검사 업무량 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 증가분을 기본 6만수까지는 3명으로 하고 이후 4만수당 1명씩 증원하던 것을 2만수당 1명씩 증원토록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현재 법제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닭·오리 도축장의 책임수의사가 법 규정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생체검사(계군 및 개체 생계 육안 단순 검사 업무), 도체검사(도체 내장 이상 유무 및 병변 육안 단순 검사업무) 등으로 6년제 수의과 대학을 졸업한 수의사가 수행할 전문직 업무로 보기에는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제도라고 보여진다.

특히 도축장은 3D업종으로 분류돼 수의사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업종으로 책임수의사의 채용이 쉽지 않은 데다가 임금 증가에 따른 원가 상승으로 기업의 부담이 가중돼 가뜩이나 FTA 타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닭고기 업계의 국제 경쟁

력 상실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따라서 전문 인력인 책임수의사는 공정에 대한 적합성을 관리하고, 실질적인 검사는 '검사보조원 제도'를 활용하는 선진국과 같은 검사시스템을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의 검사제도는 1년 이상 관련업계에 종사한 근무자를 필기시험을 통해 선발하며, 선발된 검사원(검사보조원)을 국가에서 일정 기간 동안 교육 훈련 후 검사원(inspectors) 자격을 주어 검사 실무를 담당하며 문제가 있을 때는 수의사(public Health Veterinarian)에게 보고 후 지시를 받아 조치를 하고 있다(수의사는 공장에 shift/1명이고 실검사원인 inspectors는 라인당/1명).

이에 본회에서는 효율적인 검사업무 수행을 위해 전반적인 관련법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실과 부합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관련조항의 현행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지난 10월 26일 법제처에 건의했다.

이에 앞서 본회는 지난 10월 5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한 바 있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본회는 지난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입법예고한 축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과 관련 개정법률 시행 전에 축종별 자조금 운용 상황을 평가해보고 제도 정비를 추진해 줄 것을 지난 10월 29일 농림수산

식품부에 건의했다.

현행 축산자조금법은 축종별 상황이나 특성을 고려되지 않고 획일적인 제도화라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따라 육계자조금의 경우 시행상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첫째로 자조금법 제5장 벌칙 제3조(과태료) ②항 1호와 관련하여 가축의 소유주와 사육자가 사실상 일치하는 타 축종과는 달리 육계산업은 이미 계열화가 90% 이상 진척이 된 상태로 자조금 거출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상태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을 것이다.

육계 의무자조금이 2년째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라고 사료된다.

둘째로 관련단체 간 이견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무자조금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단체 간의 갈등만을 존속시켜 나감으로써 육계산업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면 사육농가 중심으로 현행 의무자조금 반대운동이 확산되어 업계 내부 갈등을 키워 나갈 수 있다.

따라서 본회는 육계산업의 경우는 계열화사업자 중심의 의무자조금 제도를 도입하든지, 단체별 임의자조금 제도를 허용하든지 심층 검토해 줄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했다.

**축종별 전산관리시스템 구축회의 참석**

**전산시스템 사용현황 및 방향 설명**

본회는 지난 10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

영과 회의실에서 열린 축종별 전산관리시스템 구축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축종별로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이 발표됐으며, 본회는 전산시스템 사용현황과 대략적인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하여 보고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노수현 과장은 “앞으로 생산성 높은 농가 위주로 정책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농가의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며 농가 스스로 생산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정부에서 생산성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통해 개별 농가들의 실제 생산성을 파악하고, 외국농가와의 경쟁력 비교를 위한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하지만, 새롭게 자료를 산출하기보다는 기존에 이미 나와있는 각종 통계자료를 검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더욱 자세한 사항은 축종별로 1개월 정도 충분히 검토한 후 다시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하기로 했다.

## 야생조류 예찰 및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

### AI 재발 방지에 최선

지난 10월 26일 일본 환경성은 10월 14일 홋카이도 와카나이시 오누마에서 회수한 야생 오리류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H5N1)가 검출되었으며, 현재까지 사망한 야생조류는 확인되지 않는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 확산은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각 시·도에 야생철새 도래지에 대한 예찰 및 소독(주 1회 → 주 2회) 실시 등 차단방역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 본회는 회원사에 공문을 통해 육계농가에 대한 예찰 및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본회 황인옥 고문 회고록 출간

### 50여년 간의 공직생활 담아내



본회 황인옥 고문은 지난 달 자신의 일대기를 담은 회고록 ‘나의 회고, 보람과 보살핌’을 출간했다.

이 회고록에는 저자의 조상부터 시작해 출생, 어린시절(학창시절), 청·장년시절(직장생활시절), 노년 순으로

저자의 삶과 가치관이 그대로 녹아있다. 특히 지난 1957년 충남에서 수의 축산직 공무원으로 처음 축산업계에 발을 디딘 이후, 축산행정직이 타 행정보다 낙후된 사실을 알고 개혁방안을 제시해 통과시킨 일화 등 폭넓은 사회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생활을 마감하고 대한양계협회에 전무로 일하고, 외식산업 실패 사례, 한국계육협회가 창립되기까지의 다양한 업적이 내포돼 있다.

따라서 이 책은 과거에 대한 단순회고가 아니라 축산업의 역사 지식과 실천의 일치를 실행한 축산철학자가 후대에게 전하는 메시지이자 교훈이다. 